

## 초·중학교 아동의 우울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sup>1)</sup>

최 정 미\* · 우 희 정\*\*

초당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겸임교수\*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A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of their mothers

Choi, Jung-Mi\* · Woo, Hee-Jung\*\*

*Dept. of Child Welfare, Chodang University\* · Division of Social Welfare, Kwangju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depression and their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subject were 659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mothers.

In the study,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depression appeared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ir sex/grade. Parenting stress related to learning expectation appeared significant difference to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sex/grad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depression appeared significant difference to parenting stress. And as for correlating parenting stress to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depression, the significance appeared in these factors.

주제어(Key Word) : 우울(Depression),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 I. 서 론

최근 들어 정신과 병원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문제가 외현적인 행동

문제이기보다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내면적 문제가 더 많으며, 그 중 가장 심각한 정서장애가 우울로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오경자, 이해련, 임양화, 1991). 인간은 어느 정도의 두려움, 불안, 애증, 분노, 슬픔, 우울, 놀라움, 즐거움 등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있

1) 교신저자: Choi, Jung Mi, 419 Sungnamri Muaneup Muangun Chonnam 534-701 The Republic of Korea  
Tel : 062-530-1317 Fax : 062-530-1329 E-mail : shuma523@hanmail.net

으며 이러한 정서상태가 비정상적이고 부적응상태일 때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중 우울 증상은 흔히 감기에 비유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간혹 경험하게 되는 느낌이지만(Seligman, 1973), 심한 경우에는 인간의 정서적인 변화로 병적인 상태이며 근심, 침울함, 실패감, 무력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정서장애를 의미한다(Battle, 1978). 특히 아동의 우울 증상은 비교적 최근에 임상적 연구의 관심이 되고 있는 정서적 장애 중 하나로서 아동 우울에 대한 임상적 관찰과 이에 대한 연구가 현재로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내적인 부적응 중에 하나인 우울을 어떻게 정의하며 측정하느냐에 따라 발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4-16세의 3,294명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우울 성향 정도를 연구(Fleming, Offord, & Boyle, 1989)한 것에 의하면, 6-11세 아동 중 7.5%가 낮은 수준의 우울을 보이고, 0.6%가 높은 수준의 우울을, 2.7%가 중간정도의 우울성향을 보였다. 또한 12-16세 청소년은 청소년 이전기 아동보다 3배 이상의 우울성향을 보였다. Doerfler, Mullins, Griffin, Siegel과 Richards(1984)는 청소년 이전기 아동인 4-6학년들이 12.6%의 우울 수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임상적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표집된 아동의 27-52%가 우울을 나타내었고 정상아동의 경우 표집된 아동의 10-23%가 가볍거나 심한 우울을 나타내었으며(Asarnow & Carlson, 1985), Kashani와 Simonds(1979), Lefkowitz와 Tesiny(1980)의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표집된 아동의 5.24-17.4%가 우울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Rutter 등이 10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상 아동 중 13%가 우울한 기분을 보였고, 우울한 아동을 14세에서 15세경에 재평가한 결과 연구대상의 40%가 불행과 우울의 느낌을, 20%가 자기멸시를, 7-8%가 자살충동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강경미, 1994). Fleming과 그의 동료들(1989)은 우울정도가 낮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부모나 선생님이 우울한 아이로 보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는데, 이는 눈에 띄지 않고 우울해하는 아동이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으로 의적인 문제보다 더 일시적이고 회생이 커보이지 않지만 내적인 부적응 중의 하나인 우울성향은 이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짐일 수 있다(Merrell & Gimpel, 1998). 이처럼 아동기 우울은 임상 집단뿐

만 아니라 정상집단에게서도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기의 우울 증상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가볍게 보아서는 곤란하다. 많은 연구들이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적 손상이 아동에게도 나타남을 보였다. 우울한 성인과 유사하게 4, 5학년의 우울한 아동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 낮은 문제 해결력을 보였고(Kaslow, Tarienbaum, Abramson, Peterson & Seligman, 1983; Seligman et al, 1984), 그들 자신과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Kazdin et al, 1983). 또한 Poznanski, Kranhenbuhl, 그리고 Znull 등(1976)은 우울증으로 진단된 아동 10명을 6년 5개월 동안 추적한 결과, 그 중 어떤 아동도 정신병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50%는 지속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외에도 우울한 아동이 다른 형태의 정신적 장애를 갖는 아동보다 성인이 되었을 때 주요 우울 장애를 발달시키는 경향이 크다는 보고도 있다. 아동들의 우울 증세가 심각해지면 학업문제, 교우관계 등 사회화 과정에서 부적응을 초래하고 정신과 신체의 바람직한 성장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 조성술(1989)은 사춘기 학생의 25.3%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정주영(1986)은 우울 성향이 청소년의 비행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ole(1989)과 조성은(1991)에 따르면 우울이 자살 관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자살한 100명의 자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Shaffer & Fisher, 1981) 거의 모두가 죽기 전에 정신적 장애의 징후를 나타내었으며, 이 중 가장 일반적 진단이 우울이었다. Pfeffer(1986)는 비록 모든 우울 아동이 자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울한 감정은 아동의 자살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러한 견해를 참고로 할 때 아동의 우울은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울 증상 자체는 상당히 빈번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남자 중에서는 5-10%, 여자 중에서는 10-20% 정도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essman & Meyers, 1978). 또한 기분이 울적하다든지, 불행하다고 느낀다든지 하는 감정은 10세 정도의 아동기에도 경험되고 있으나, 그 빈도는 사춘기를 전후해서 급격히 증가한다. Rutter와 Garmez(1983)은 10세 아동의 경우 10-12%가 잘 울려고 하고 기분이

울적하다고 평정한 것에 비하여 14-15세에서는 40% 정도가 그런 증상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층에서는 우울증상의 발현빈도가 성인층 보다도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학교 연령의 청소년기 초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 약 1/3정도가 중증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Kovacs & Beck, 1977), 우울 증상이 청소년층에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경험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의 우울 원인에 대하여 공통적인 해석은 어렸을 때의 부모와의 격리와 상실이었다. 부모의 상실이나 양적 빈도에 대하여서도 연구되었는데, 우울증 환자는 다른 질환의 환자들이나 정상인들보다 이러한 부모와의 사별, 이별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민성길, 1993). 심리적 문제로 치료를 요청한 아동들 100명 중 약 37명이 어렸을 때 부모를 상실했거나 분리되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eligman, Gleser, Rauh & Harris, 1974). 그러나 Jacobson, Fasman과 Dimascio(1975)는 우울의 원인을 연구하기 위하여 우울증 환자 집단, 외래환자 집단 그리고 정상 집단 등 세 집단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부모의 상실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정서적 유지관계가 부재 혹은 결여되었을 때 우울증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인의 우울증과의 형적인 박탈과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양육과정에서의 정서적 유지관계의 손실 혹은 박탈과 우울증간에 높은 상관성이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울증 환자의 초기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의 손실 경험 그 자체이기보다는 양육과정에서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박탈되는 경험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우울증환자는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Beck, 1967; Blatt, 1974; Raskin, Boothe, Reating, Scolterbrandt & Odle, 1971; Lamont & Gottlieb, 1975). 부모가 그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냉담하며,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자신의 자율성과 독립심을 허용하지 않는 등 많은 간섭을 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울증 환자집단에서 그들의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esser & Gross, 1995).

이처럼 아동의 우울은 아동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으며, 관련문헌들은 '우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많은 경고를 하고 있

다. 아동의 우울은 가정 이외에 학교, 사회조직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지속적인 영향은 아동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먼저 아동 양육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어머니에 대한 연구가 보다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다수 연구는 요보호 아동이나 학대받은 아동들의 임상적 증례에 관한 것이므로 우리 사회의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아동의 우울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관련변인 중에서도 아동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 변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아동의 우울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어머니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본다.

한편, 양육스트레스란 부모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로써 부모에게는 양육 그 자체가 스트레스적인 사건일 수 있다(Gibaud-Wallston & Wandersman, 1978). 더욱이 급속한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산업사회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더욱 다양하고 심각해지는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양육스트레스는 다른 주요 생활사건과 비교하면 사소한 스트레스지만 매일 반복하여 경험하고 누적되므로 부모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자녀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양육스트레스가 가족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되어감에 따라 그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Abidin(1992)은 부모역할수행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로 개념화하였으며 부모가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으로 보았다. 또한 Webster-Stratton(1988)은 부모자녀 관계나 부모역할 수행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는데, 지금까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만성 질환이나 장애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양육책임과 아동의 요구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왔다(김영미, 1990; 류정혁, 1990; 전순영, 1984).

또한 편모나 십대부모 등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들(Wikie & Ames, 1986; Belsky & Rovine, 1990; Harriman, 1983; Simons,

Bearman, Conger, & Chao, 1983; Umberson, 1989)과 부모기로 전환되어지는 시점에 있는 대상자들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이 양육스트레스 연구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정상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김희순, 1988; 이숙현, 1990; 한세영, 1996; 고성혜, 1994), 대부분이 아동기 이전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다른 심리적 특성이나 행동상의 문제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더욱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 시대의 우리나라 입시풍조가 이 시기의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지각과 명령, 비난, 처벌과 같은 양육행동과 연관된다는 결과들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으며(Bierman & Smoot, 1991; Dadds, 1987; Krech & Johnston, 1992; Patterson, 1982), 특별히 양육스트레스가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이나 비난을 많이 하는 등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손상하였음이 보고되었다(Webster-Stratton, 1988; Whipple & Webster-Stratton, 1991). 가정에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Patterson(198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사소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녀에게 짜증을 더 많이 내며, 이는 자녀로 하여금 공격적인 반응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서·행동발달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서소희, 1994), 어머니로서의 모성경험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고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어두운 가정 분위기를 만들고(박해미, 1994), 자녀양육에 대하여 무력감을 느끼게 하며, 공격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양육스트레스와 부정적 양육행동은 관련성이 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학력위주의 사회풍조, 입시경쟁, 부모들의 교육열로 인한 재정적, 정신적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받은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우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다수 연구는 요보호 아동이나 학대받은 아동들의 임상적 증례에 관한 것이므로 우리 사회의 일반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중학교 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아동의 우울은 차이가 있는지,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아동의 우울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동의 우울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이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받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리 가정의 아동의 우울과의 관계를 밝혀 아동과 어머니와의 관계개선이나 양육상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상처를 받은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앞으로의 관련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아동의 우울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아동의 우울은 차이가 있는가?

넷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우울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아동들과 그들의 어머니들로 총 659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 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 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번안하여 사용한 신속재(1997)의 양육스트레스 30문항을 사용하였다. 실제로 요인들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659)

변인	구분	N (%)	변인	구분	N (%)
성별	남아	296(44.9)	어머니 연령	만37세 이하	198(30.4)
	여아	363(55.1)		만38-40세	237(36.3)
학년	초등학교 5학년	147(22.3)		만41세 이상	217(33.3)
	초등학교 6학년	161(24.4)	어머니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13(32.8)
	중학교 1학년	209(31.7)		고등학교 졸업	317(48.8)
	중학교 2학년	142(21.5)		대학교 졸업 이상	120(18.5)

여 요인수를 3개로 지정한 후에 주성분 분석과 오블리닌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확인되었고 각 요인의 고유치는 요인 1이 5.12, 요인 2가 1.86, 요인 3이 1.36이었으며, 각각의 설명되는 변량은 25.58%, 9.31%, 6.79%로 나타났다. 이 3개 요인의 문항내용에 기초하여 요인 1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요인 2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그리고 요인 3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라고 명명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8문항)가 .82,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9문항)가 .70, 그리고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3문항)가 .67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우울

아동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Faulstich 등(1986)이 아동과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CES-DC(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와 Kovacs (1985)의 CDS(Children's Depression Scale)

를 참고로 하여 전귀연(1993)이 선정한 2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6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 분석, 신뢰도(Cronbach's  $\alpha$ ), t-test와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우울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우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2〉 참조), 아동의 성별(p< .01)과 학년(p<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여자인 경우가 남자인 경우보다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이되는 과도기인 아동 후기에는 아동들이 심리 및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

〈표 2〉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우울

(N=645)

변인	구분	우울			
		M	SD	D	t(F)
아동의 성별	여아	49.38	19.59		8.91**
	남아	44.96	16.99		
아동의 학년	중학교 2학년	53.47	17.19	A	12.67***
	중학교 1학년	49.89	19.25	A	
	초등학교 6학년	42.30	18.11	B	
	초등학교 5학년	43.32	17.13	B	

D: Duncan의 사후검정 \*\* p< .01 \*\*\* p< .001

〈표 3〉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N=659)

변 수		성 별	M	SD	t
양 육 스 트 레 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남 자	16.58	5.00	0.96
		여 자	17.01	5.98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남 자	20.81	5.22	0.32
		여 자	20.57	5.22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남 자	8.27	2.82	15.67 ***
		여 자	7.40	2.76	

\*\*\* p<.001

해서 스트레스 경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특히 여아가 남아보다 더욱 취약(Elder & Caspi, 1988; Werner & Smith, 1982)하고, 자아상의 혼란이 심하므로(Simmons et al., 1979)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년에 따라 보면, 중학생인 경우가 초등학생인 경우보다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후기로 갈수록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적응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충분히 능력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외형상의 성장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많은 요구와 기대를 받게 되므로 어린 아동들보다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3, 4〉참조), 먼저 아동의 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만이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아동의 성이 남자인 경우가 여자인 경우보다 학습기대와 관련하여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에 남아선호사상과 아직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고 때문에 딸보다 아들에 대하여 앞으로의 진로나 직업과 관련하여 기대가 더 크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들에게 갖는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으로써 즉 대학입시, 졸업 후 취업 등으로 연결되는 우리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아동의 학년에 따라서는 〈표 4〉에 제시한 바대로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p<.05)와 학습

〈표 4〉 아동의 학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N=659)

변 수		학 년	M	SD	D	F
양 육 스 트 레 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중학교 2학년	17.26	5.28		1.17
		중학교 1학년	17.14	5.80		
		초등학교 6학년	16.52	5.47		
		초등학교 5학년	16.26	5.57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중학교 2학년	21.33	5.26	A	3.19*
		중학교 1학년	21.00	5.15	A	
		초등학교 6학년	20.71	5.22	A	
		초등학교 5학년	19.54	5.13	B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중학교 2학년	7.57	2.68	B	6.14***
		중학교 1학년	8.47	2.74	A	
		초등학교 6학년	7.41	2.87	B	
		초등학교 5학년	7.43	2.87	B	

D: Duncan의 사후검정 \* p<.05 \*\*\*p<.001

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 $p<.001$ )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보다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인 경우에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는 자녀가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인 경우보다 중학교 1학년인 경우가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첫째인 1학년 자녀에 대해 어머니의 새로운 긴장과 기대 등으로 인해 더 높았다가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적응된 2학년 때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우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아동의 우울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우울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이

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상집단이 중집단 이하보다 아동의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우울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 이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집단이 중집단 이하보다 아동의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우울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05$ ), 이는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일수록 아동의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우울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우울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은 유의한 상관인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r=.23, P<.001$ ),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r=.17, P<.001$ ),

<표 5>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우울의 차이

(N=645)

변 인	구 분	우 울			
		M	SD	D	F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상	52.71	18.90	A	14.61***
	중	46.76	18.47	B	
	하	43.43	17.34	B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상	50.94	19.63	A	5.72**
	중	46.65	18.03	B	
	하	45.10	17.07	B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상	50.01	18.77	A	4.26*
	중	47.23	16.34	AB	
	하	45.00	19.71	B	

D: Duncan의 사후검정 \*  $p<.05$  \*\*  $p<.01$  \*\*\*  $p<.001$

양육스트레스 집단분류: 하<M-SD, M-SD≤중≤M+SD, M+SD<상

<표 6> 아동의 우울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1	2	3
1.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2.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44***		
3.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43***	.42***	
4. 우 울	.23***	.17***	.13***

\*\*\* $p<.001$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r=.13$ ,  $P<.001$ ) 순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과 관련하여서는 자녀의 기질이 까다롭다고 인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며(김기현·조복희, 2000; Mash & Johnston, 1990; Webster-Stratton, 1990), 부모나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스트레스 지각에 더욱 중요하다(고성혜, 1994; Levitt, Weber, & Clark, 1986)고 하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자녀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기질관련 스트레스와 아동의 우울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가 어머니의 기대대로 잘 따르지 않아 힘이 들고, 자녀와의 사이가 가깝지 않다고 여길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입시위주, 학업우선주의와 같은 우리의 현 실정이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중학교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우울을 중심으로,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아동의 우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아동의 우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아동의 우울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두 변인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및 그들의 어머니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우울은 아동의 성별( $p<.01$ )과 학년(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이 여자인 경우가 남자인 경우보다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이되는 과도기인 아동후기에는 아동들이 심리 및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서 스트레스 경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특히 여아가 남아보다 더욱 취약(Elder & Caspi, 1988; Werner & Smith, 1982)하고, 자아상의 혼란이 심하므로(Simmons et al., 1979)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년에 따라 보면, 아동의 학년은 중학교 1, 2학년이 초등학교 5, 6 학년보다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즉 중학생인 경우가 초등학생인 경우보다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아동후기로 갈수록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적응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충분히 능력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외형상의 성장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많은 요구와 기대를 받게 되므로 어린 아동들보다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동문제의 양상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남아의 행동문제는 주로 과잉행동, 야뇨증, 반사회적 행동 등의 외현적인 증후인데 비해, 여아는 우울, 부끄러움, 불안, 두려움 등의 내면적인 증후를 많이 보인다는 연구(김보경 등, 1992)도 있다. 이처럼 아동의 성별에 따라 행동문제의 유형에 차이가 나는 것은 남아와 여아가 각기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아가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관대한 태도로 받아들여지거나 묵인되는데 반해, 여아에게는 내면적인 민감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이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결국 행동문제의 표출이나 유형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발달수준에 따라 행동특성이 달라지므로 아동의 연령에 따라 행동문제의 발생과 유형도 다를 수 있다. 대체로 등교거부나 분노발작 등은 어린 아동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행동문제인 반면, 비행이나 우울증 등은 아동후기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Rutter, 1980)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성별과 연령은 아동의 우울과도 관련될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먼저 아동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이는 아들일 경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아직까지 우리의 문화 내에서 남아선호사상이나 성공에의 심리적 압박이 성에 따라 다르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라 보여진다. 아동의 학년에 따라서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 $p<.05$ )와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 $p<.01$ )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연령이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며 이러한 일로 인해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감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동이 초등학생인 경우보다 중학생인 경우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은 특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첫해인 1학년 아동인 경우 어머니는 새로운 중학교에 대한 긴장과 기대, 초등학교보다는 대학입시에 더욱 가까워진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더 높았다가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적응된 2학년 때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우울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p<.001$ ),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p<.01$ ),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p<.05$ ) 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경험하는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모역할을 잘 하기가 어려워지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신숙재,1997), 아동의 우울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양육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한 과정이 결국은 아동의 우울,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및 강박행동과 같은 정서적 부적응 행동(김혜련,1994)이나 반사회적 행동(연진영,1992)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때,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적 지원과 남편이나 주위사람들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자녀의 존재는 어머니에게 보람과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해결해 주면서 자녀가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머니의 많은 노력과 댓가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자녀가 기대에 따르지 않을 때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때로는 정보나 방법을 잘 몰라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학교나 기관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을 통해 어머니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머니는 다시 힘을 얻어서 자

신이 갖고 있는 내면의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좋은 부부관계는 부모가 양육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정서적인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Minuchin,1974) 남편의 부모로서의 협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좋은 부부관계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우울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23),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17),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13)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아동의 우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나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스트레스 지각에 매우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들(고성혜, 1994; Levitt, Weber, & Clark, 1986)과, 어머니와 자녀의 기질적 조화가 자녀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한세영, 박성연, 1996; Buss & Ploman, 1984)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의 기질적 문제가 어머니에게 양육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아동의 우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본 연구가 발달 특성상 사춘기에 접어든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와 갈등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아동의 우울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아동의 우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문제 상황별로 개인적인 대처방안이 연구되고, 또한 적절한 방법을 훈련을 통해 익히는 방법과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즉,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고 노력하는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아동의 우울과의 유의한 상관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으로 자녀의 학습이나 공부에 대한 기대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부담감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 우울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우

리나라 어머니의 학습에 대한 부담감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막론하고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못지 않게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담감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고, 아동의 학업과 관련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어머니들이 아동의 우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아동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 학업관련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 보다 나은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우울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한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리라 보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 학년만을 살펴보았으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녀수, 자녀의 출생순위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면이나 분위기, 부부간의 만족도 등과 같은 보다 폭넓은 사회인구학적 측면의 변인과 심리적 측면의 변인들과의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유무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았으나 차후 연구에서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여긴다. 이는 직장일, 가사 그리고 자녀양육의 삼중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취업여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자녀양육으로 인한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리라 예측 할 수 있으며, 비취업모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부분의 선행연구처럼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 변인만을 다루었으나 현대적 특성상 자녀양육의 책임은 어머니만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 의해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강경미(1994). 소아기 우울증의 개관. *청소년·소아 정신의학*, 5(1), 1-10.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김기현, 조복희(2000). 맞벌이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1(4), 35-50.

- 김보경, 조현춘, 정대영, 박영균 역(1992). *아동기 행동장애*. 서울: 성원사.  
김영미(1990).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이화여대 석사논문.  
김혜련(1994).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논문.  
김희순(1988). *정서·정보적 지지모임이 만성질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박사논문.  
류정혁(1990). *뇌성마비 아동의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문경주(1994).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 고려대 석사논문.  
박해미(1994). *자녀 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서소희(1994). *자폐아 연령군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박사논문.  
오경자, 이혜련, 임양화(1991).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문제 특성*, *소아정신건강*, 12(3).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이숙현(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논집*, 2, 1-27.  
전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 박사논문.  
전순영(1984). *신체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과 아동의 일상생활활동 의존도와와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논문.  
정주영(1986). *청소년 우울 성향과 비행과의 관계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조성술(1981). *청소년 정신 건강상의 문제점*, 학생생활연구 13, 전남대 학생생활연구소.  
조성은(1991). *여고생의 우울과 자살 관련 감소를 위한 인지적 집단 상담의 효과*, 전남대 석사논문.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모와의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이화여대 석사논문.

- 한세영, 박성연(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아동학 회지*, 17(1), 245-258.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 (PSI)* : Manual Pediatric Psych.
- Battle, J.(1978).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s*, 42, 745-746.
- Baumrind, D.(1967). Childcare practice,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345-348.
- Beck, C.(1979). The occurrence of depression in woman and the effect of the women's movement. *Journal of Psychiatric Nursing*, 17(1), 14-19.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mporad, J. R.(1982). Management of childhood depression :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Psychosomatics*, 23, 272-279.
- Buss, A. H., & Plomin, R.(1984). *Temperament :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 Erlbaum.
- Cole PM, Kaslow NJ(1988). Interactional and cognitive strategies for affect regulation,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childhood depression, SB Allet(Eds). *Cognitive process in depression*. NY London. Guilford Press.
- Faulstich, M., Carey, M., Ruggiero, L., Enyart, P., & Gresham, F.(1986). Assessment of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 An evalu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CES-DC).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 1024-1027.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P. (1978). Development and ab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Kovacs, M.(1985).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Psychopharmacology Bulletin*, 21, 995-998.
- Kovacs, M., & Beck, A. T.(1977). An empirical-clinical approach toward a definition of childhood depression. In J. C. Schulerbrandt & A. Raskin(Eds.), *Depression in children : diagnosis, treatment, and conceptual models*. New York : Raven Press.
- Krech, K.H., & Johnston, C.(1992). The relationship of depressed mood and life stress to matern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115-122.
- Levitt, M.J., Weber, R.A., & Clark, M.C. (1986). Social network relationships as sources of maternal support and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10-316.
- Mash, E. J., & Johnston, C.(1990). Determinants of parenting stress : Illustrations from families of hyperactive children and familie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313-328.
- Minuchin, S.(1974). *Family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orris, C.G.(1986). *Psychology : An Introduction* (5th ed.). N.J.: Prentice Hall.
- Patterson, G.R.(1982). *Corecive family process*. Eugene, OP: Costalia.
- Patterson, G.R.(1983). Stress : A change agent for family process. In N.Garmezy, & M.Rutter,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235-264). New York : Mcgraw-Hill.
- Paykel, E.S.(1969). Life events and early environment. In E.S. Paykel(Ed.), *Handbook of affective disorders*. New York: Guilford Press.
- Poznanski, E.O., Kranhenbuhl, V. & Zrull, J. P.(1976). Childhood depression : A longitudinal perspectiv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5, 491-501.
- Rutter, M.(1981). *Parental and teacher questionnaire*. London: Longman.

- Rutter, M. & Garmezy, N.(1983).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P.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th Ed.)*. New York : John Wiley & Sons.
- Schaefer, E. S., & Bayley, N.(1969). Maternal behavior and personality development. In G. R. Medinnus(ed.), *Reading in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 N.Y. : John Wiley & Sons, Inc.
- Seligman, M.E.P.(1973). Fall into helplessness. *Psychology Today*, 7, 43-48.
- Simmons, R.G., Blyth, D.A., Van Cleave, E.F., & Bush, D. M.(1979). Entry into adolescence : The impact of school structure, puberty, and early dating on self-este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948-967.
- Webster-Stratton, C.(1990). Stress : A potential disrupter of parent perceptions and family interac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9, 302-312.
- Werner, E., & Smith, R.(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 A study of resilient children*. N.Y.: McGraw-Hill.
- Wessman, M. M., & Meyers, J. K.(1978). Affective disorders in a U.S. urban communit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5, 1304-1310.
- Whipple, E.E. & Webster-Stratton, C.(1991). The role of parental stress in physically abusive families. *Child Abuse & Neglect*, 15, 279-291.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중학교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우울을 중심으로,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아동의 우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아동의 우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아동의 우울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두 변인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우울은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이 여자인 경우가 남자인 경우보다 우울이 더 높고, 학년에 따라서는 중학교 1, 2학년이 초등학교 5, 6 학년보다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학년에 따라서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와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우울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우울과의 상관관계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순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